

불교계 노력으로 무종단의 설움 종결시킨 상징

현대 교단변화의 완결점...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주소이다. 이곳은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대부분 알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도 위치이지만 조계사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신도 교육을 하면서 가끔 물어본다. 한국의 불교 종단을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기세 좋게 말하다가 예닐곱 종단을 꼽으면 말이 끊어진다. 한국의 불교 종단 참 많다. 20여 종단이 모여 종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조계종 명칭을 붙인 유사조계종만 30개가 넘는다. 아마도 불교종단은 족히 몇 백 개는 될 것 같다. 그 많은 종단 가운데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대표주자이다. 역사성과 규모가 타종단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 조계종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행정기구와 중앙총회가 조계사에 자리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린다. 저마다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위안을 얻는다. 주변의 직장인은 점심식사 후 이곳을 거닐며 생활로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조계사는 도심사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많은 역할에 비해 조계사의 장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38년 11월 창건됐으니 70여 년 됐다.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중심이 된 것은 창립의 배경 때문이다. 1566년 선교양종 폐지 이후 수백 년간 한국불교는 무종단 시대를 지냈다. 설움도 설움이지만 면목이 없는 일이었다. 그런 설움이 근대에 이르러 불교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일제의 강압이 끝나갈 무렵 총본산으로 조계사가 세워짐으로써 근대 이후 교단변화를 완결했으며, 현대 불교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총본산 조계사가 세워지기 전 한국불교는 다음과 같은 교단 변화를 겪었다.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은 대본산 원흥사였다. 대본산 설립은 일본불교 가운데 정토종의 교세가 상당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경기도 내의 승도들을 모집하고 정토종의 회원들을 흡수해 정토종을 고갈시키려는 의도에서 세워졌다. 그런 목적으로 1899년 동대문 밖의 영미정을 매입해서 사찰을 창건할 때 소흥사라 했다. 낙성식 때 정토종 관장을 불러 법회를 열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소흥사가 1902년 1월 25일 원흥사로 바뀌었다.

다. 대본산을 세운 조선정부는 후속조치로 사라졌던 승직을 부활했다. 이러한 교단의 구성과 승직의 설치는 조선조 배불정책에서 본다면 승정의 대변화라고 할 만큼 역사적 사건이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음을 의미하며 불교가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조선정부는 원흥사 창건에 이어 1902년 4월 11일 불교계를 관리할 주무부서로 사사관리서를 설치했다. 이것은 그동안 방치했던 한국불교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였다. 임의대로 널리 있는 불교계에 대해 정부가 관리자를 세워 사찰을 총괄한다면 불교계를 정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은 일본의 근대적 전환에서 불교의 역할이 컸음을 생각하고 한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근대적 전환에 불교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2년 7월 사사관리서는 36개조의 '국내사찰행세칙'을 제정했다. 현행세칙이 발표되자 그동안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방치됐던 국내의 사찰 및 승려들이 국가행정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게 됐다. 특히 국가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승려의 위상과 대우가 다소 나아졌다. 그리고 이때 설치된 관리서는 궁내부에 소속된 관서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명한 관리가 사무직에 임명돼 제반 사무를 맡아 했으므로 불교계를 조직화 할 수 있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불교 통할기관인 관리서는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이미 조선왕조는 쇠퇴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04년 1월 관리서를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를 내부관방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2월에 칙령 제15호로 이 사찰에 관한 사무를 내부지방국 주관으로 하게 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내부부 지방국으로 이전돼 사사계로 편성됐다. 그 후 사사계는 1919년에 학무국 종교과로 이관됐다.

원흥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대본산이라면 원흥은 한국불교의 노력으로 재건된 종단이다. 일본불교의 포교활동을 지켜본 한국의 승려들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부를 수 있는 종단의 이름을 필요로 했다. 1908년 3월 6일 각 도의 사찰대표 52인이 원흥사에서 총회를 열고 원흥종무원을 설립하고 이



총본산으로 조계사가 세워짐으로써 근대 이후 교단의 변화가 완결됐다.

회광을 대종정으로 김현암을 총무로 추대했다. 이런 원흥 설립은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불교인들의 시대 인식으로 종단이 건립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큰 사건이었다. 배불의 시대를 겪으면서 잃어버렸던 종단의 역사가 원흥이라는 새로운 종단으로 부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립의의와 달리 원흥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한일합방이후 종단 내의 지위만을 확고히 하려는 이회광은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와 연합시키려 했다. 조동종과 불평등한 연합을 체결하고 돌아온 이회광은 불평등한 내용은 숨긴 채로 각도 대표들을 찾아다니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연합했으므로 찬성하는 날인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전문이 누설되면서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승려들은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팔아넘기는 매종역조의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백양사의 박한영, 화엄사의 진진은, 범어사의 오성월과 한운 등이 중심이 돼 전라·경남도의 사찰이 단결해 원흥의 연합사건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1911년 1월 15일 영남과 호남의 승려들이 순천 송광사에서 회합해 총회를 열고 원흥과는 별도로 임제종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서산휴정 이후 상승돼 오던 승가의 법맥이 태고 보우의 임제종 계통이기 때문에 원흥보다는 임제종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

짧은 연혁 불교 한국불교 중심 불교혁신운동, 총본산 건설 발단

다. 그러나 원종과 임제종 모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11년 6월 3일 일제는 전문 7조의 사찰령을 발표해 한국불교를 완전히 장악한 총독부는 1912년 6월 원종과 임제종을 해체시켰기 때문이다.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생겨난 것이 30본산제이다. 한국을 병합한 일제는 불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로 전문 6개조의 사찰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법령의 제정으로 일제는 행정적으로 전국의 사찰을 30본산과 그 말사로 등록케 하는 본말제도를 확립해서 주지의 임면권을 총독부와 지방장관이 장악했다. 그리고 사찰의 폐합·이전·재정의 처분 등 각가지 규제로 한국 불교를 억압해 1300여 불교 사찰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근대 교단체제로 마지막으로 설립된 것이 한국불교 총본산이다. 총본산 건설은 1920년부터 청년 불교인들이 본사주지들의 전환에 맞서 정교분리와 사

찰령폐지를 주장한 불교혁신운동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30본산제를 유지하려는 일제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 그 후 1936년 한국불교는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 1937년에는 전남까지 확산돼 지금과는 다른 불교계 연합 체제가 형성되려 하자 총독부는 1937년 2월 26일과 27일에 개최된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총본산 명칭을 조선불교선교양종총본산 각황사로 하며, 현 재단법인인 교무원은 해체해 총본산에 귀속시키고 각황사는 매각해 가지 확장에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결의했다. 그 후 3월에 사찰령을 개정해 총본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총본산 역할을 할 사찰 건립은 1937년 7월 27일 시작해서 1938년 11월에 준공됐다. 1940년 4월 사명(寺名)을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를 옮겨오고, 그해 11월 31본사 주지들이 모여서 종래 사용하던 조선불교선교양종을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개칭했다. 총독부는 1941년 4월 23일 사찰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인가했다. 태고사는 6월 6일 종무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불교인들의 여망이었던 총본산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조계사 일주문의 옛 모습



2005년 새롭게 지어진 조계사 일주문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1. 12. 17(토) 오후 1시부터 ~ 12. 18(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세계제일 적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중현 (정흥교) 크스님 직강

- 지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회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배, 직업, 성격, 적성, 공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